

개인정보와 공개 정보의 경계 읽기

똑똑 · 에디터 나루 · 발행 2026.09.30

공개된 정보라도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라도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개 자료를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쉬운 설명

공개된 정보라도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자료와 익명 자료는 같지 않습니다.

핵심

- 공개된 정보라도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없는 자료와 익명 자료는 같지 않습니다.
- 모든 공개 자료를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질문 · 대상과 범위부터 읽기

공개된 정보라도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만으로 자유로운 재사용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이름처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뿐 아니라 다른 자료와 쉽게 결합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문제됩니다. 공개된 수상 명단과 학교의 동아리 사진을 합치면 익명 설문의 응답자를 짐작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념 구분 · 같아 보이는 말을 나누기

이름이 없는 자료와 익명 자료는 같지 않습니다. 학년·반·회귀 활동·사진을 조합하면 소수의 학생이 누구인지 추측될 수 있습니다. 가상 3학년 전체의 평균 만족도와 “3학년 2반에서 유일한 전학생의 만족도”는 공개 위험이 다릅니다. 후자는 이름을 지워도 이미 주변 사람이 아는 속성과 연결됩니다. 정보의 민감성은 숫자보다 맥락에서 커집니다.

적용 사례 · 가상의 장면에서 판단하기

가상 설문에서 이름을 지웠어도 “3학년 2반 유일한 전학생”이라는 설명과 민감한 답을 함께 공개하면 주변 사람이 답한 사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통계를 공개할 수 있어도 필요한 최소 범위로 묶는 편집이 가능합니다. 학급 대신 학년 단위로 묶거나 드문 응답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만 너무 넓게 묶으면 특정 집단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으므로 목적과 권리의 균형을 설명해야 합니다.

비교표 · 이 글의 세 가지 판단 기준

확인 항목	본문에서 확인한 것	읽을 때 주의할 점
핵심 범위	공개된 정보라도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자료와 익명 자료는 같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가상 설문에서 이름을 지웠어도 “3학년 2반 유일한 전학생”이라는 설명과 민감한 답을 함께 공개하면 주변 사람이 답한 사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개 자료를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후속 확인	표의 각 열을 하나씩 보는 데 그치지 말고 결합했을 때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검사하고 공개 범위를 줄입니다.	법적 판단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관의 구체적인 처리 지침으로 확인합니다.

본문 설명을 비교하기 위해 직접 만든 표입니다. 기관 원문의 도표나 실제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한 단계 더 · 조건을 바꾸면 답도 달라집니다

설문 전에 왜 수집하는지, 누가 원자료를 볼지, 언제 지울지 정합니다. 이미 공개한 뒤 지우는 것보다 공개 전에 재식별 가능성을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적 판단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관의 구체적인 처리 지침으로 확인합니다. 모든 공개 자료를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익적 정보 제공과 개인의 권리를 함께 살피며,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수집·공유해야 합니다.

깊이 읽기 · 다른 조건으로 시험하기

학급의 생일 목록은 공개 정보처럼 보여도 이름·학년·사진과 결합되면 특정 학생에 관한 자료가 됩니다. 같은 숫자 표라도 소수 학생의 값은 식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개 위험을 판단할 때 정보 하나가 아니라 이미 주변에 있는 정보와의 결합을 봅니다.

자료를 익명화할 때 이름만 삭제하고 원본 파일 이름에 학생 이름을 남겨 두는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 범위, 파일 속성, 원자료 접근 권한을 함께 점검합니다. 연구 목적이 끝난 뒤에도 계속 보관해야 하는지 별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 · 원문과 사례에 적용하기

표의 각 열을 하나씩 보는 데 그치지 말고 결합했을 때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검사하고 공개 범위를 줄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조합으로 특정 학생이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목적에 불필요한 세부 분류는 묶거나 제외하고 공개 범위와 동의를 다시 검토합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익명 설문 결과에 학년·반·회귀한 동아리 이름을 붙여 공개하려 한다. 먼저 할 점검은?

확인 설명

이름이 없어도 조합으로 특정 학생이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목적에 불필요한 세부 분류는 묶거나 제외하고 공개 범위와 동의를 다시 검토합니다.

공개된 정보도 언제 개인정보가 될까요?

공개된 정보라도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만으로 자유로운 재사용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자료와 익명 자료는 같지 않습니다. 학년·반·회귀 활동·사진을 조합하면 소수의 학생이 누구인지 추측될 수 있습니다.

익명 설문 결과에 학년·반·회귀한 동아리 이름을 붙여 공개하려 한다. 먼저 할 점검은?

이름이 없어도 조합으로 특정 학생이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목적에 불필요한 세부 분류는 묶거나 제외하고 공개 범위와 동의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름만 지우면 설문 결과를 안전하게 공개할 수 있나요?

모든 공개 자료를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익적 정보 제공과 개인의 권리를 함께 살피며,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수집·공유해야 합니다. 표의 각 열을 하나씩 보는 데 그치지 말고 결합했을 때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검사하고 공개 범위를 줄입니다.

원문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 —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40612>: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정의; 본문의 가상 수치나 학교 사례를 제공한 자료는 아닙니다.

- UNESCO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지침 — <https://www.unesco.org/en/articles/media-and-information-literacy>: 매체의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생산하는 역량; 본문의 가상 수치나 학교 사례를 제공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personal-data-public-information>